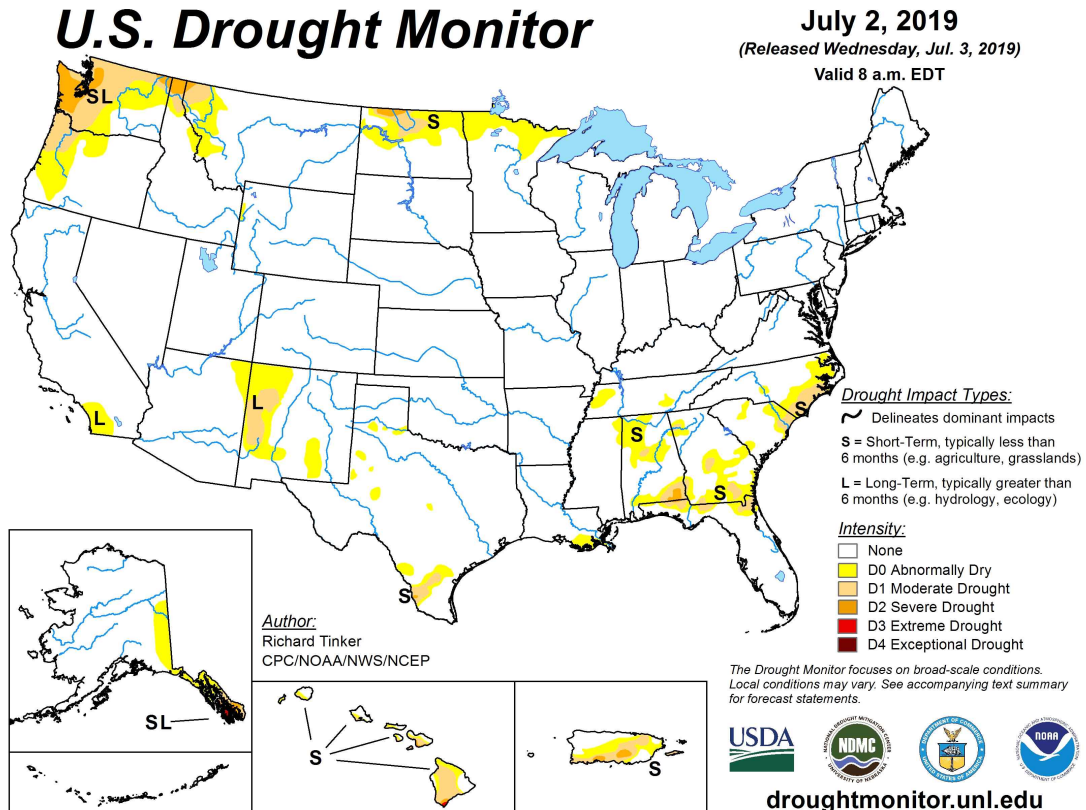


7월 9일 USDA 기후작황보고서(Volume 106, No. 67)

□ 미국 기후 현황(6/30~7/6)

연속해서 두 번째 주에도 옥수수 벨트의 많은 곳에 호우가 비껴가서 파종 작업을 거의 다 끝낼 수 있었다. 하지만 옥수수 벨트의 남부와 동부에는 간헐적인 소나기만 내렸을 뿐, 날씨가 아주 뜨거워서 이전에 침수되었던 밭에서 토양이 어느 정도 다져지는 문제가 생겼다. 옥수수 벨트의 중부와 동부에서부터 북동부 일부까지 주간 평균 온도는 정상보다 최소 5° F 높았다. 한편 평원 - 주로 캔사스에서부터 사우스다코타까지 - 뿐만 아니라 중서부 위쪽에 지역적인 호우가 점점이 내렸다. 평원에 내린 비는 이미 작물 성숙이 늦어져 지연되었던 겨울밀 수확을 지역적으로 늦추었다. 하지만 태평양 북서부에서부터 미네소타 북부까지에 이르는 일련의 미국 북부 주들 전체에 대체로 건조한 날씨가 되돌아왔다. 많은 곳의 온도가 정상 근처 또는 정상 이하였기는 했지만, 사실상 건조한 날씨가 로키 산맥 서부의 대부분의 지역을 뒤덮었다. 하지만 로키산맥 남부는 뜨거운 날씨가 우세했다. 그 밖의 곳은 뜨겁고 습한 날씨가 남부 전역에 작물 발달 속도를 빠르게 촉진했다. 남동부에서는 평균 온도가 정상보다 5° F 정도 높았다. 이곳에 있는 여러 지역 사회의 지난주 온도는 100도에 도달하거나 100도를 넘어섰다.



□ 농업 현황 요약(7/1~7/7)

비가 미네소타, 미조리, 네브라스카, 사우스다코타 일부에서 가장 심하게 내렸다. 어떤 지역은 4인치가 넘었다. 나라의 서쪽 절반의 많은 곳에서 정상보다 낮은 온도가 눈에 띄었다. 어떤 곳은 평균치가 정상보다 2° F 이상 낮았다. 하지만 옥수수 벨트, 대서양 중부, 뉴잉글랜드, 뉴멕시코, 남동부의 일부에서는 온도가 정상보다 최소 4° F 이상 높았다.

□ 세계 기후 현황(6/30~7/6)

■ 유럽: 중유럽과 남유럽에 폭염이 계속되고 있었던 반면, 최북단 재배지역까지는 날씨가 좀 더 시원해지기 시작했다. 주초에는 대륙 유럽 전반적으로 폭염이 (35-39° C) 널리 관측되었지만 북부와 발트해에서부터 좀 더 시원한 조건이 남쪽으로 서서히 밀고 내려오기 시작했다. 프랑스와 북스페인에서부터 동쪽으로 남폴란드와 서발칸까지 주 평균 온도는 정상보다 4-9° C 높았다. 중유럽과 북유럽의 뜨겁고 건조한 조건들은 겨울밀과 유채를 건조하고 수확하는 작업에 도움이 되었다. 하지만 북이탈리아와 남프랑스에서는 6월의 많은 기간 시원한 날씨 덕분에 옥수수가 거의 정상적으로 발달해왔지만, 심한 열은 (35° C 이상) 솟아사출현 단계 중인 옥수수에게 해롭게 작용하였다. 역으로, 최근 남동유럽에서 머물던 소나기가 (지역적으로 10 mm 이상) 토양을 적셔주었고 폭염을 진정시키는데 도움이 되었는데, 온도는 30도 대 중반 근처 또는 그 이하에 머물러 있다. 독일과 폴란드를 가로질러서는 뜨겁고 건조한 조건이 눈에 띌 정도였는데 겨울 작물의 수확에 유리했던 반면 단기 건조로 인해 토양 수분 손실을 올리고 있다. 남독일부터 폴란드 중부와 남부까지 30일 총 강수량이 정상치의 25% 이하였다. 마찬가지로 이베리아 반도를 가로질러 가뭄이 계속되고 있는데 1차 옥수수와 해바라기 지역은 (특히 스페인의 '카스티야이레온'에서) 90일 강수량이 지역적으로 정상치의 50% 이하였다.

■ 구소련(서부): 주초에 있었던 폭염은 주말에 시원하고 소나기가 내리는 날씨에게 자리를 내어주었다. 우크라이나와 남벨라루스에서부터 남서러시아까지는 온도가 섭씨 30도 대 중층-상층으로 올라가 옥수수와 해바라기가 성숙기를 향하도록 또는 성숙기에 들어서도록 가속화시켰다. 하지만 강한 한랭전선이 북쪽에서부터 현저하게 시원한 날씨를 선도함으로써 러시아의 중앙부와 불가 구역을 가로질러 주간 평균 온도는 정상보다 2-4° C 낮았다. 이 쌀쌀한 공기는 일주일이 지나면서 아주 변덕스럽기는 했지만 (1-40 mm), 광범위하게 비를 뿌린 소나기를 동반하면서 벨라루스, 몰도바, 우크라이나, 서러시아를 가로질러 남서 방향으로 흑해 쪽으로 밀고 나갔다. 최근 폭염은 여름 작물들의 생식기를 평균보다 1-2주 앞당겼는데, 선선해진 주말 날씨는 솟아사출현기와 출사기를 맞은 옥수수에게 안정맞춤이었다. 더욱이 7월 8일 현재, 추가로 내리는 소나기가 우크라이나와 서러시아의 1차 여름작물 지역을 전반적으로 휩쓸고 있어서 생식 중인 여름 작물에게 필요한 수분을 상승시켜주고 있고 최근의 폭염과 건조로 잠재수량이 감소하고 있는 것을 저지해주고 있었다.

■ 동아시아: 강한 소나기가 (50-100 mm 또는 그 이상) 남중국에 계속되고 있어서 영양생장 중인 후작 벼에게 적당-풍부한 수분을 공급해주고 있다. 비슷하게 북동부의 많은 곳에 있는 영양생장 중인 옥수수, 콩, 벼도 꾸준히 내리는 비 덕분에 수해를 입었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흑룡강성, 서길림, 내몽골 인근 지역에 25-50 mm의 (지역적으로는 이 이상) 비가 내렸다. 예외적으로 요동성만 지난 30일 동안 평균 이하의 강우를 경험했다. 한편 양쯔 계곡과 북중국 평원의 많은 구역이 뜨겁고 건조한 날씨를 경험하여 여름 작물의 관수 필요가 올라가고 있다. 하지만 관수를 하더라도 거의 40° C를 맴도는 온도 때문에 작물에 다소 스트레스를 입혔던



것 같다. 한반도와 북일본 일부에는 건조한 날씨가 다시 찾아와 벼에게 수분 공급을 줄이고 있었다. 어떤 장소는 30일 총강수량이 정상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 호주: 남퀸슬랜드와 뉴사우스웨일즈 북부에서 산발적으로 내린 소나기는 (대부분 5 mm 이하) 주요 밀 생산 지역에 가뭄을 덜어주는 결과를 내지는 못했다. 5월 초부터 계속 비가 내리지 않아서 밀과 기타 겨울 작물들의 수확량 전망을 어렵게 했고, 가까운 시일 내로 상당량의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감소량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뉴사우스웨일즈 남부, 빅토리아, 남호주에 산발적으로 내린 소나기는 (1-10 mm) 밀, 보리, 캐놀라에 필요한 수분 공급량을 유지시켜 주었다. 남동호주의 많은 곳은 작물 상태가 여전히 양호한데, 이곳 날씨는 강우와 햇볕이 주기적으로 반복되어 영양생장 중인 겨울 곡물과 유지작물의 발달을 촉진하고 있다. 그 밖의 밀 벨트에서는 서호주에 내린 내린 소나기가 (15-50 mm) 밀, 보리, 캐놀라에게 아주 유익했다. 넓은 지역에 흠뻑 젖는 비가 내려서 작물의 활착에 도움을 주어 이른 철 수확량 전망을 더욱 밝혀주고 있다. 서호주에서 평균 온도는 정상 근처였고 남호주와 동호주는 정상보다 1-3° C 높았다.

■ 아르헨티나: 대부분의 주요 농업 지대는 건조한 날씨가 우세하여 마지막 계절 작업 단계에 도움이 되고 있었다. 부에노스아이레스 남동부와 먼 북동쪽에 (코린테스와 미시오네스) 내린 가볍고-적당한 소나기를 (2-10 mm, 몇 곳에는 20 mm 이상 기록됨) 제외하면 중앙 및 북아르헨티나의 주요 곡물, 유지작물, 목화 지역에는 비가 전혀 내리지 않았다. 이 지역들은 전체적으로 주간 평균온도가 정상보다 1-3° C 낮았고, 낮 최고 온도는 전통적으로 더운 북부 지역에서만 20° C에 도달했다. 차코 같은 먼 북쪽에는 결빙이 흔하게 있었다. 아르헨티나 정부에 따르면 7월 4일 현재, 옥수수는 66% 수확되었는데 작년과 비교하면 12% 정도 지체된 것이었다. 마찬가지로 보고에 따르면, 목화는 작년 같은 시기 97%와 비교해서 83% 수확되었다. 한편 밀은 작년 81% 대비 66% 파종되었다.

■ 브라질: 중앙브라질의 핵심 생산 지역에서는 건조한 날씨가 옥수수의 빠른 건조와 수확을 도와주었다. 여름의 온기가 (낮 최고 온도는 섭씨 30도 대 하층 및 중층에 도달하고 있음) 건조를 동반하여 중서부와 북동부 내륙 지역의 많은 곳을 둘러쌌다 (마토 그로소에서 북동쪽으로 토칸틴스와 바히아, 피아우이, 마란하오에 있는 인근 지역들을 통과하여). 마토 그로소 정부에 따르면, 옥수수는 7월 5일 현재 62% 수확되었는데, 이 수치는 5년 평균 (35%)을 훌쩍 뛰어넘는 것이었다. 목화는 4% 수확되었는데 5년 평균 (5%)에 준하였다. 반면에 남브라질에는 축축하고 자주 추운 날씨가 우세하여 밀 파종과 기타 야외 작업을 일시적으로 지연시킨 것으로 보였다. 총 10-50 mm의 강우가 (지역적으로 더 높음) 마토그로소도솔과 상파울로에서부터 남쪽으로 리오그란데도솔을 통과하기까지 내렸는데, 미나스게라이스 남부의 커피 지역까지는 좀더 가벼운 비가 (최대 10 mm) 내렸다. 중앙 파라나처럼 먼 북쪽은 밤 최저 온도가 결빙 이하로 떨어져서, 대부분의 작물들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만한 발달 단계에 충분히 올라오지는 않은 상태였기는 했지만, 발달 초기에 있는 밀에 대해서는 다소의 우려가 올라오고 있다. 파라나 정부에 따르면, 2차 작물 옥수수는 7월 1일 현재 41% 수확되었고, 작물의 나머지 80%는 성숙기에 도달했다. 밀은 96% 파종되었고 출현한 작물의 약 25%가 개화기에 도달했다. 한편 리오 그란데 도 솔에서는 7월 4일 현재 밀이 88% 파종되었고

출현된 작물의 3%만이 개화 중이었다.
